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10월 8일 안양본원서 4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주지 혜원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스님의 뜨거운 원력 언제나 빛날 것”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49재 10월 8일 봉행

안양본원서 4천여 사부대중 참석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8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및 김난희 서울시장 부인, 서강호 안양시 부시장, 최대호 전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원 등 재가내빈, 안양본원 및 부산 · 광명 등 전국지원 신도 등 40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포교원에서는 한국불교 기로에서 낡은 신행 형식과 포교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마음선원에서 전개하는 ‘주인공으로 살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 내 자신이 주인공임을 믿고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며 살자는 것”이라며 “비우고 나누며 한마음 불국정토를 이루는 것은 혜원 스님이 평소 강조한 ‘생활 속에서 한마음을 실천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49재에서는 혜원 스님에 대한 참석자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여실히 하시고, 불사 현장에서 하나하나 맑은 마음으로 낱낱이 챙겼다. 특히 지혜로 사제들과 신도들을 보듬었다. 항상 노함이 없으셨던 스님은 공심으로 사신 분”이라고 혜원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노덕현 기자

韓 · 中 · 日 밀교의식 한 자리서 만난다

진각종, 26~27일 창종 70주년 밀교의식 시연회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창종 70주년을 맞아 창종정신 계승과 밀교의식 대중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진각종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대강에서 ‘창종 70주년 학술대회 및 밀교의식 시연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밀교의식을 만날 수 있는 27일 ‘밀교의식의 전통과 전개양상’ 주제의 시연회 행사다.

시연회에서는 법경 정사의 ‘진각종 불사의식의 내용과 의미’ 발제에 이은 진각종 시연팀의 불사의식을 비롯해 △허범일 교수의 ‘범자진언의 원류와 활용’ 주제발표 △시즈카 고옌 일본 고야산대학 명예교수 외 1명의 ‘범자진언의 세계’ 시연 △잠양 카이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의 ‘십일면천수천안관음수지법’ 발표와 시연 △가토 고야산 금강봉사 법회과장의 ‘진언밀교 고야산 성명의 역사’ 발표와 시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진각종 창종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26일 열리는 학술대회는 진각종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아갈 역할들을 모색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효명 정사의 ‘진각종 창종정신의 현대적 적용’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현대불교에서 진각종의 의의와 역할’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응화성전의 교의적 특색’ △김치온 진각대 교수의 ‘이참(理懺)과 마음공부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1045일 도난 聖寶 환수 모든 것을 담다

조계종 문화부,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 백서〉 발간

2014년 5월 26일, 한 경매회사에서 불교미술을 주제로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된다. 모니터링 결과 한 불상이 2004년 도난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후 경매 도록을 확인한 결과 이밖에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대전사 신중도, 영은사 영산회상도 등 3점의 도난 성보도 발견됐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전담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와 합동으로 5월 29일 옥션 프리뷰 현장으로 출동해 장물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확인된 불상 1점과 불화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했다. 이것이 3년여의 도난 성보 환수 사업의 시작이었다.

2014년 5월 26일 시작된 조계종 문화부와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의 1045일 간의 고군분투 여정이 담긴 백서가 발간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와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지거)는 10월 중순 중으로 2014년 5월 26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도난 성보 환수 경과 등이 망라된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경매회사에서 도난문화재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들의 공조와 피해 사찰들과의 협력을 통해 31건 48점의 성보를 찾고, ‘다시 찾은 성보 이운고불식’을 열기까지 1045일 간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백서는 크게 △도난문화재 발견에서 회수까지, 성과와 과제 △1045일의 기록 △도난불교문화재 31건 48점 개관(불교조각 · 불교회화 · 불교공예) △관련 자료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개괄에 해당하는 ‘도난문화재 발견에서 회수까지, 성과와 과제’에서는 조계종 문화국장 용주 스님이 소논문이 수록됐다. 스님의 논문에 그간의 성보 환수 시작과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 창립, 문화재청 · 경찰청과의 공조, 도난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처벌 등의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선의취득 조항으로 장물 취득 부분이 죄를 인정받지 못한 것과 사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주 스님은 “다수의 문화재 장물 유통은, 이러한 선의취득 조항을 일부 거래자가 악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예방을 위해서는 선의취득 배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거나, 아니라면 거래 시에 취득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7년 3년 간 기록 망라
31건 48점 성보 환수 과정부터
문화재 해설 · 문서자료도 담겨
백서 오는 10월 중순 발간 예정

‘1045일 간의 기록’ 챕터에는 성보 환수 과정에 대한 사진과 간략한 설명들이 시기별로 정리돼 있다. 문화재 개관 챕터서는 31건 48점의 각 성보별 특징과 해설들이 수록됐다. 관련 자료에는 보도자료부터 유물공개전시회 행사 도면 · 콘티 · 법적 대응 자료와 일지까지 모두 담겼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3년 이상이 소요된 도난불교문화재 환수 사업은 말 그대로 전례가 없었던 사업”이라며 “그런 만큼 회수를 성료하기까지는 지난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을 면밀히 기록해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백서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도난문화재 회수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면서 “종단은 앞으로도 모든 성보가 제자리에서 종교적 가치를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법 포교 대상 파악, 인력양성 시급”

태고종 중흥 신호탄
전법 포교 세미나 눈길

제26대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단 중흥을 기치로 내건 태고종이 ‘전법과 포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총동문회(회장 탄해)는 10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한국불교태고종의 전법과 포교 활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심준보 동국대 교수의 ‘불이성 법륜사와 현대포교’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의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현대적 포교방법론’ △중앙승가강원총동문회 교육위원장 성철 스님의 ‘덕암전득 스님의 생애와 사상’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가 ‘정보사회 전개와 불교의 현대적 포교전략’을 주제로 태고종의 포교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호 교수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교인구 감소현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포교 대상인 불교신자와 불교를 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욕구파악이 안 된 점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태고종 스님들이 전법포교를 통한 종단 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어 “태고종은 포교 대상이 어떤 종교적 개인적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첫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의 발달을 이용해 종단 유무형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활용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변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고 포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준보 금강대 교수는 ‘법륜사와 현대포교’를 주제로 “1920년대 유점사 경성포교원으로 시작한 불이성 법륜사는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포교도량이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태고종 포교의 지향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태고종 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태고종은 불자수 감소 국면에서 새로운 중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위상 하락의 책임은 승단 모두에게 있다. 쇄신의 각오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교육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해야”

해인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해인총림 50주년 세미나서

불교의 승가교육은 기존의 도제식 교육을 탈피해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은 10월 10일 경내 보경당에서 열린 해인총림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무애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회고와 전망’에서 해인사 승가대학의 역사와 교육적 담론, 향후 전망 등을 살폈다. 스님은 종래의 승가교육이 학인이 교육의 대상자가 돼 객체화 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탈피해 현대식 토론 수업으로 진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무애 스님은 “훈고학적 강사의 일방적 교육은 5%만 효과가 있으나 일반 토론 교육은 50%, 이스라엘 하브루타식 토론 교육은 80%에 육박하는 학습교과를 나타냈다”면서 “승가교육도 학인이 주인이 되고 교수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야기하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8 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허 녹원
회 주 열산 혜창
주 지 웅산 법등

부 주 지 현종 천불선원장 정진 박물관장 도신
교무국장 혜창 병 법 보천 재무국장 혜철
사회국장 덕현 호법국장 월담 연수국장 민성
도 감 도순 신도국장 묘각

사 부 대 중 일 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종무소 : 054)429-1700 FAX : 054)436-3174